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 49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15일 가진 입재법회에서 혜총스님은 "알게 모르게 쌓이는 몸의 때와 같은 죄업을 묵묵히 씻어내"라며 "끊임없는 참회로 맑은 마음자리를 발원할때 까지 정진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4박 5일의 참회기도기간 동안 참회기도와 지관스님, 인환스님, 정관스님, 홍선스님, 금당스님, 성우스님, 법희스님, 해인스님, 철우스님, 각성스님, 혜총스님 등 법사스님의 법문으로 신심을 다졌다. 친미희 기자



일주문

인양교도소와 자매결연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30일 오후 1시30분 안양교도소를 방문, 자매결연식을 갖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능인선원은 매일 한 차례 안양교도소를 위로 방문해왔다.

육군 교육사령부서 법문

삼종 부산 자비사 주지는 14일 대전 육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무궁화 표구 그림 50점을 기증하고 교육생들을 상대로 참회게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장학금

양산 강북장 애인복지관장은 8일 복지관에서 관내 저소득층 가정 중고생 3명에게 1/4분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용대 새 학장에 선출

구해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준보유자)은 최근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용대 새 학장에 선출됐다.

한길포도리인 전시회

선암스님(한길포도리인 회장)은 16일~20일까지 서울 예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제5회 한길포도리인 정기전시회를 가졌다.

'광덕스님과 빈아바라밀' 특강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4월 2일 안성도 피안사에서 '광덕스님과 빈아바라밀'을 주제로 특강한다. (0334)676-8700

'깨달음의 열쇠' 출판회

정병조 한국 불교연구원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공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호국 보훈시서 법문

최혜명 군부교전총회 부회장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선곡에 위치한 호국 보훈사에서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법문한다.

동국대 석좌교수에 위촉

김명하 코래드회장은 16일 동국대 석좌교수로 위촉, 이번 학기부터 학부 3~4학년들을 대상으로 '광고 캠페인론'을 강의하게 된다.

신진법무사 사무소 개원

박종길 법무사(대구구도회)는 18일 수성구 범어3동 범어빌딩 303호에서 신진법무사 사무소를 개원했다. (053)753-6775



'선원총람' 출판기념 법회

조계종 교육원(인장 일면)은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원총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일면(교육원장) 법통(중앙총회의장) 원택(총무부장) 계상(교육부장) 법장(수덕사주지) 광우(전국비구니회장)스님과 중앙총회의원 정권 자인스님,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도명스님 부도·탐비 제막식

담연당 도명스님의 부도 및 탐비 제막식이 14일 고성 금강산 화암사(주지 동선)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도명스님의 상좌·순상좌스님들과 신홍사 회주 오원스님, 중앙총회의원 정홍·마근스님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95년 입적한 도명스님은 1962년 과거사에서 고승스님을 은사로 득도, 조계종 중앙총회의원과 월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서울불교문화대학 개교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이 설립한 서울불교문화대학 개교 기념법회가 10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학과 50명 법사와 20명 등 70명의 입학생들과 그 가족, 종정 혜공스님등 풍단 스님들과 서울불교문화대학 김윤직 학장, 총지중 총지화 총리원장, 대구대학교 박운촌 총장 등 5백 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중 고적정리연구위 자매결연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4일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중국 전국교교·대학 고적정리연구위원회와 '한국한학사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가졌다.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에는 중국측 안평추 주임과 북경대 양충 교수 등과 동국대 송석구총장 등이 참석했다.

"석등·탑 비교연구 계속"

한국교원대 정년퇴임 정영호 박사



'고고미술학'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았던 정영호(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박사. 60년 8월 '고고미술' 제1권에 기고한 '원주의 사적 : 흥법·법천·거문'에서 99년 11월 '불교미술'에 게재한 '고구려 금니여래입상'까지 저서 33권, 논문 323편 등을 펴내며 국내 불교미술사의 초석을 다졌던 정박사가 17일 한국교원대를 정년 퇴임했다.

"52년 분황사 석탑,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지역 불교유적을 답사하면서 불교미술에 기울었는데, 53년 황수영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고고미술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박사에게 학문적인 호기심을 자극한 불교미술품은 다름 아닌 석등이었다. 석등이 가지는 조형미의 빼어나거나, 극락왕생의 길을 밝혀준다는 석등의 상징적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그를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끔 유도한 것이다.

정박사는 그후 50여 년 동안 답사와 연구를 반복했는데, 조사한 유물·유적 중에서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들이 상당수 있다. 청동사보각국사정해원웅탑(국보 112호), 선산죽장동5층석탑(국보 130호), 진전사지3층석탑(국보 122호), 팔공산이 갯바위불상(보물 431호)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충북 청원군 비룡사사지의 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절터임을 확인했고, 법주사 팔상전의 초석군과 충북 증원군 가금면 봉황리 햇골산의 고구려시대 마애불·보살군을 등을 새로이 발견·조사해 불교예술품에 담긴 당대의 불교문화를 밝혀냈다.

"나만치 운이 좋아 유적·유물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도 드물 것"이라는 정박사는 "한국교원대와 동국대를 오가며 중앙 3국의 석등·탑 비교 연구와 불교 공예 연구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교 관련 유적·유물에 대한 발굴과 조사를 전담할 연구소 개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박사는 현재 지인(知人)과 후학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정년 퇴임식에서 정영호 박사는 50여 년간 자신의 학문적 성과물을 완전히 압축한 '고고미술의 첫걸음(한인)'을 세상에 선보였다. 이 책은 각종 학술지에 발표했던 208편의 주요 논문을 실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부부교수가 낸 사찰환경 도서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위원인 이병인(41·밀양대 환경공학과)·이영경(41·동국대 조경학과) 부부교수가 자신들이 발표한 사찰환경 관련 논문 및 에세이를 모은 '사찰환경연구'를 발간했다. 223쪽 분량의 이 책은 사찰환경의 보존과 관리, 불교와 환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난 94년부터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11편과 '불광지'에 기고한 에세이 18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15일 경주 신라문화원에서 출판기념식을 가진 이씨 부부는 "스님과 불자들의 사찰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찰경관 및 오세수에 관한 책을 더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절을 쉽터·문화공간으로"

범어사신도회 박수관 회장

"스님들의 수행 기반과 신도들의 수행공간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신도회로 조직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2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취임법회를 가진 박수관 신임회장은 범어사 신도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회장은 범어사 신도회가 이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정비부터 시작했다. 범어사 신도회 조직인 관음회, 지장회를 비롯 신도회 조직을 갖추고 있는 말사 신도회 조직 파악 및 의견수렴에 한창이다.

"말사의 신도회장과 범어사를 아끼는 다양한 사람들이 범어사 신도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탄탄한 조직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박회장은 범어사를 사람들의 삶 가까이로 끌어와



삶의 연장선에 있게 하고 싶어한다. 사람들의 위안처가 되고 문화의 장이 되는 범어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신도회가 다진다는 포부로 스님들을 만나고 말사 신도회장을 만나고 있다.

본부장도 맡고 있는 박회장은 23년째 범어사 신도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범어사에 오르면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었다"는 박회장은 자신이 그랬듯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범어사를 통해 삶의 힘을 되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한다. 앞으로 범어사 신도회는 50여명의 이사진, 실무자를 갖추고 시민들을 위한 일요 법회 개최, 부산 불교 문화의 장이 되는 불교회관이나 불교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등 다양한 사업 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 TAPE(1시간 30분 테이프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태입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90분, 5,000원)

오소는 이 테입에서 바르도에 대한 설명과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에서 깨어 있는 순간에 있다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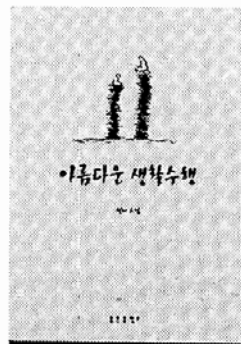
행사기간 : 2000년 5월 31일까지(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흥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원혜 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제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처음으로 출가 발심할 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라면, 첫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첫 아기의 미소를 바라볼 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 처음 절에 왔을 때, 처음 절에서 마주했을 때의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표정이 상대를 부처님의 품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환희함에 가득찬 신행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활수행> 중에서



<아름다운 생활수행>에는 원혜 스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간파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 예절과 대중 화합 공동체 및 가정 생활 등에서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묶는 것'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원혜 스님의 예절론이 신선하다.

저자 원혜 스님은 마곡사에서 득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봉은사 주지 소임중.

흥·출·판·부

전화 (02) 547-4255
팩스 (02) 516-6885

